증권

Sector Issue Brief 2026. 04. 02

거래강도 과열 이후 진정 국면: 유동성 여건 변화 가능성

Check Point

- 금융변수 변동성 급증
- 거래과열 진정, 유동성 여건 변화 가능성
- 1Q 브로커리지 수익 대폭 증가에도 비우호적 Trading 여건

| Analyst **전배승** | bsjun@ls-sec.co.kr

3월 지표 점검과 시사점: 거래강도 과열 이후 냉각. 금리/물가 상승으로 유동성 여건 변화 가능성

▶ 3월 초 전쟁 발발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조원에 달하고 시가총액 회전율이 500%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상승.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유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3월 중순 이후로는 거래강도가 둔화되면서 회전율이 300% 미만으로 하락. 3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월에 이어 69조원을 기록

▶ 과거 추이를 보면 3월초와 같이 이례적으로 시총 회전율이 급등한 이후로는 등락을 이어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평균치인 200% 내외로 수렴. 최근 종전 기대감으로 증시와 거래대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일시적 거래강도 과열 이후 진정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

▶ 고객예탁금의 경우 3월말 110조원으로 130조원을 상회했던 3월초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. 신용잔고 역시 역사적 최고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가파른 증가속도는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

▶ 한편 3월 중에는 증시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. 이는 향후 증권업황의 결정변수 중 하나인 실질 유동성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. 대내외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증권업종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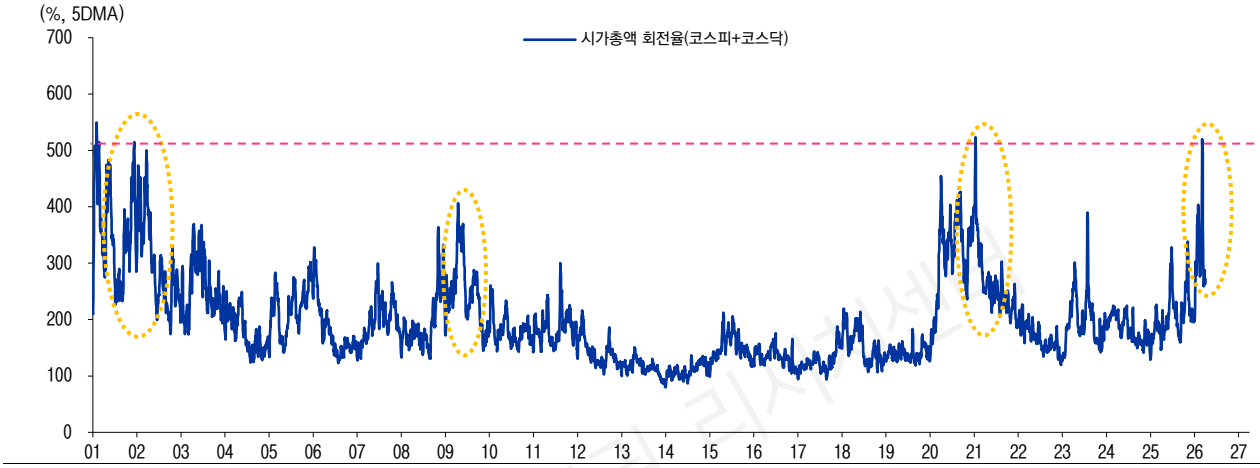
'26.1Q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에도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부 부정적 영향 예상

▶ 26년 1분기(1~3월) 일평균 거래대금은 67조원으로 25년 4분기 37조원에 비해 80% 증가. 25년 1분기의 19조원 대비로는 260%가 상승. 따라서 1분기 국내증시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전분기와 전년동기대비 급증이 예상되고, 신용잔고 평잔 또한 지난 4분기 대비 20% 증가함에 따라 신용공여 이자수익 역시 크게 증가할 전망

▶ 하지만 3월 들어 주가, 환율, 금리 등 금융변수 전반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채권 및 주식관련 Trading 손익의 경우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됨

▶ 향후 업종주가는 1분기 실적 보다는 종전 가능성 등 증시여건에 연동된 흐름이 이어질 것. 다만 거래강도 과열 이후 조정국면이 진행되고 있고, 향후 유동성 여건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지수 반등 시 차익실현 전략을 권고

그림1 일간 시가총액 회전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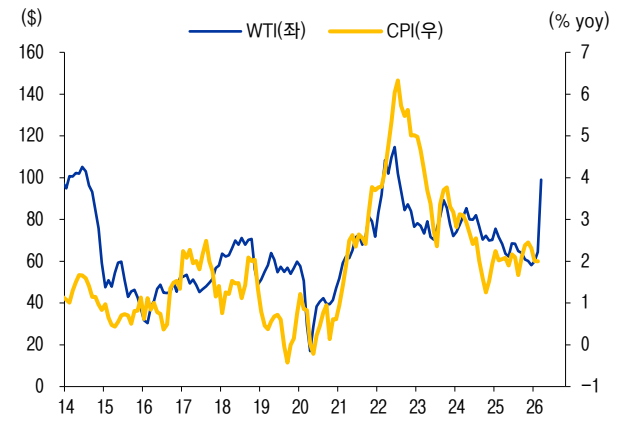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시장금리 추이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국제유가와 국내 소비자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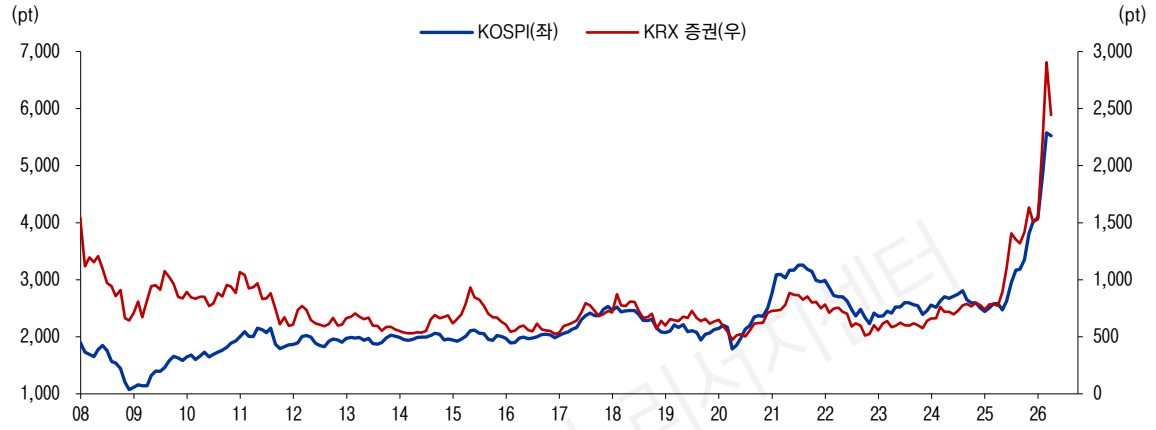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실질유동성 증가율과 증권업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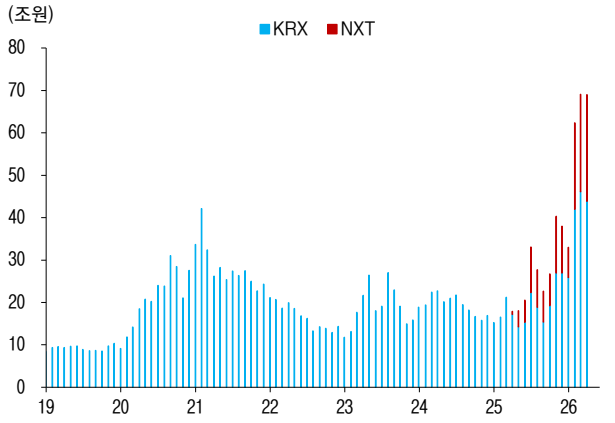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KOSPI 와 증권업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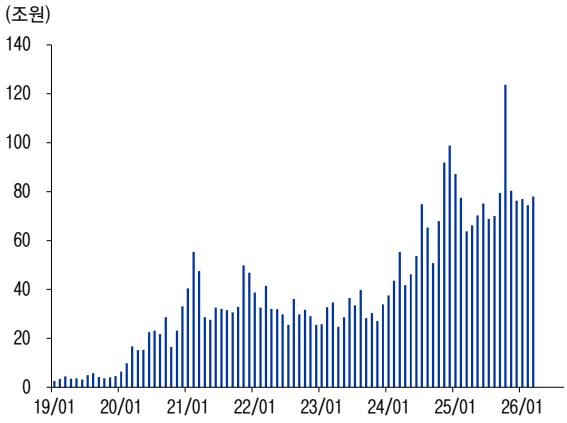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국내증시 거래대금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해외증시 거래대금

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고객예탁금 추이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신용잔고 추이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 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 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-15% 이하 기대	89.3% 10.7%	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15%로 변경
		합계		**100.0%**	투자의견 비율은 2025. 04. 01 ~ 2026. 0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 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